

아미타여래 좌상

이 좌상은 서방정토(극락)의 부처님인 아미타여래입니다. 888년에 만들어진 닛나지 절의 본존으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아미타여래상입니다. 아래쪽을 내려다보는 시선과 매끄러운 목조 조각의 곡선이 온화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미타여래는 죽음과 삶을 영원히 반복하는 윤회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여 서방정토에서의 왕생으로 인도하는 부처님으로 불교에서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아미타상은 더 세속적인 의미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이 상은 불상의 일본화가 시작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생겨난 불교는 중국을 경유하여 6세기에 일본에 들어왔습니다. 그와 더불어 대륙의 조각 기술이 일본에 전래되어 나라 시대(710~794년)에 성행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불상이 대륙의 전례를 벗어나 독자적인 양식을 형성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통나무에 상의 주요 부분을 조각하는 이치보쿠즈쿠리로 만들어진 이 아미타여래상은 헤이안 시대(794~1185년) 동안에 계속 진화해온 일본적인 조각이라는 양식의 출발점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손이 얹은 자세의 부처님 무릎 위, 배 앞에 놓여 있고 양손의 엄지와 검지가 원 모양을 만드는 명상 자세는 거의 아미타여래상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 상은 아미타여래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